

# 과기정통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본격화

- 「여성과학기술인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1월 28일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여성과학기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2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 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2026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을 통해 본격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용 중인 기관들의 기법(노하우)이 과학기술계 전체로 퍼져나가, ‘포용적 연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 문화와	책임자	과장	이제준 (044-202-4840)
		담당자	사무관	양재혁 (044-202-4841)
			주무관	김찬호 (044-202-4849)
<관계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경영기획실	책임자	실장	박정희 (02-6411-1050)
		담당자	팀장	이지민 (02-6411-1034)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제16조의3(우수사례의 발굴·확산)</p> <p>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례를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발굴하고, 발굴된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li> <li>2. 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 보호</li> <li>3.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li> <li>4.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li> </ol> <p>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사례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